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인간의 죄성이 이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하려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굳건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4)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8월 22일 (토) 제 154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퍼거슨사태 1주년... “선서수호자 등장”

BBC뉴스, 퍼거슨 시에 등장한 “Oath Keepers” 역할규정 따른 논란 보도

퍼거슨에서 경찰에게 살해당한 마이클 브라운의 죽음이 1년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중무장을 한 채로 세인트루이스를 순찰하는 백인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우익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Oath Keepers”, 즉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지키겠다는 ‘선서 수호자’ 집단(OK)에 속해 있다.

퍼거슨에 이들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살해한 경찰이 대배심원들이 기소하는 것에 반대해 지난해 11월, 퍼거슨에서 시위가 격렬해지자 도심가의 건물 옥상에 여러 명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BBC뉴스는 보도한다(Ferguson unrest: Who are the mysterious ‘Oath Keepers?’).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겠다” VS “극단주의...인종차별주의 아니라고 못해”

2009년에 창설한 OK그룹은 전, 현직 군, 경찰들이나 초동 대처자들에게 “그들이 지키기로 한 헌법에 대해 교육go 그들이 더 잘 대처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다.



퍼거슨 사태 1주년을 맞아 퍼거슨 시에 등장한 선서수호자 OK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초당파적 모임이라고 규정하는 OK그룹은 회원들이 “비헌법적인 명령”을 준수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웹사이트에는 대표적인 “비헌법적” 행위로 미국 시민을 적법적 절차 없이 무장해제 하거나, 영장 없이 수색, 혹은 배심원 대신 “직전투원”으로 자신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

창설자 스투어트 로드스는 예일 법대 졸업생이자 미 낙하산 부대 출신이다. 그는 미 헌법, 특히 수정 헌법 제2조인 ‘모든 시민의 총기 소지와 무장의 자유’의 확고한 수호자로 널리 알려졌다.

2011년 자유시장주의 시사지(Reason)와의 인터뷰에서 OK그룹의 목표는 “총을 쏜 사람들이 헌법을 어기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전복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한다”는 증오범죄 워치독 그룹의 비판을 그는 전

면적으로 부인한다.

OK그룹은 2010년 온라인 시사저널 마더 존스가 “우익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애국자’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로드스는 만약 독일 군경이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K는 전직 군경 인물들로

짜여 있으며 3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졌다고 자랑한다.

대배심원이 11월에 대런 윌슨을 기소하지 않자, 퍼거슨에서는 순식간에 시위와 폭동이 확산했고, 곧 퍼거슨의 건물 옥상 곳곳에 자동소총을 어깨에 걸친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면으로 계속)

벨기에 북부, 안락사 생명윤리적 우려 점증!

뉴스위크, 합법화 10년 만에 남용 가능성 증가 보도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 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이 연구 발표했다.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된다.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보다 증가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Euthanasia Rises in Belgium’s Flanders Region: Doctor-assisted suicide more common, decade after country legalized practice).

2013년 연구에서는 안락사 요청건수의 75% 이상이 받아들여져 2007년의 55%보다 많았다. 요청건수 자체도 늘었다. 이처럼 안락사 수치가 증가한 건 이제 환자들이 안락사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데다 의료진도 점점 더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논문의 주 저자이자 브뤼셀브리예대학과 겐트대학 공동연구그룹인 ‘엔드오브라이프 케어 리서치그룹’ 연구원 케네스 챔베레 박사는 말했다.

인구 600만의 플랑드르 지역은 연간 사망자 수가 5만8천명이다. 이번 연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남부 지역은 다루지 않았다.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안락사 요청이 거부된 환자를 위한 말기로 클리닉 자료를 사용했다.

해당 클리닉에서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645건의 안락사 요청 가운데 4분의 1이 받아들여졌다. 거부된 건수는 300건이었고, 또 다른 124명은 안락사 요청이 검토되기 전에 사망했다. 또한 9.1%에 해당하는 59명은 요청을 반복했다.

플랑드르와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한 두 연구는 안락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연구방법도 달라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플랑드르 지역 안락사는 다수(80%)가 말기암 환자였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는 3분의 1이

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로 한 두 연구는 안락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연구방법도 달라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벨기에에서는 2009-2013년 사이 안락사 요청이 수용된 케이스의 약 3%가 정신질환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



암,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였으며 3분의 1은 치매의 전조인 인지력 감퇴 환자였다.

플랑드르든 네덜란드든 생명윤리학자들이 특히 우려를 나타낸 사안은 치료가 불가능한(incurable) 신체질환이 아닌 정신질환 때문에 안락사가 받아들여진 케이스다. 네덜란드에

할 경우 의료진은 수용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숙고한 후 내린 결정인지, 환자의 상태가 앞으로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ATS,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헬리콥터 부모’ 자녀는 병 들고 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김강한 목회자, 김강한 교회 염예선 박사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3. 입학 시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헬리콥터 부모’ 자녀는 병들고 있다!

WSJ, 부모 과잉 교육열기로 힘든 대학생 실태와 대안 제시

미 전국적으로,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마다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을 초대하는 컨퍼런스를 열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학습내용 등을 소개한다. 최근 들어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교육법이 점차 확산되면서 학교에서도 학부모를 초대하는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낱짜를 기억했다가 부부가 함께 방문해 자녀를 담당할 교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학교 분위기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고, 책으로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로 인해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나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받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다(Kids of Helicopter Parents Are Sputtering Out: Recent studies suggests that kids with overinvolved parents and rigidly structured childhoods suffer psychological blowback in college). 2회에 걸쳐 부모의 지나친 교육 열기로 병들고 있는 대학생들의 실태와 함께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맹모삼전”이라는 한자 속어는 교육을 위해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뜻으로, 항상 한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녀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다. 그들은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를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부모다. 둘째는 “폭격기 부모”(stealth bomber parents)다.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인생이 막장인 것처럼 자신의 분노를 거침없이 표



사 그리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스펙”을 끌고 나온 영재들이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진지한 상담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마디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라는 말이다.

실제로,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국 부모들의 간섭과 통제는 지나칠 정도다. 딸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아내와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4년 걸리는 학업 과정을 7년 정도로 조정해, 학과목 선정에서 전공교수 면담에 이르기까지 관리(micromanaged)해,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치게 했다. 그러나 부모는 이혼했고, 딸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삶을 리드해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2013년 대학상담센터 담당자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는 학생들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들을 보이고 있어, 대학 당국에서 갑자기 부상되는 긴급한 쟁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70%는 갈수록 심리적 문제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24.5%

부모 교육열로 명문대 갔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자율성과 역할분담에 장애 ‘잔디깎기 부모’도 문제...실패도 성장과정, 위기 맞보며 커가도록 놔둬야

출하고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 부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의 부모는 앞의 제시된 두 부모와는 정반대인 “인공위성”(satellite parents)이다. 이들은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던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며 살아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부모 모습 중에 가장 보편적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헬리콥터 부모들이다. 현대사회의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심각하게 두각이 되는 헬리콥터 부모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녀 위에서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며 맴돈다.’ 이 말은 헬리콥터가 가진 장점의 특성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헬리콥터는 높은 위치에서 제

자리 비행(hovering)을 하면서 추방과 후진으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수직으로 독수리처럼 비행이 가능하기에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부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가차 없이 자녀에게 방향의 패도 수정을 바랄 뿐 아니라 지나친 강요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헬리콥터와 같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여 소위 일류 대학에 보냈으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한 빌 데레시비츠(Bill Deresiewicz)는 자신의 책(Manifesto Excellent

Sheep: The Miseducation of the American Elite and the Way to a Meaningful Life)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맛볼까봐, 심각한 우울 증세와 함께 정서적 문제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목도한 학생들은 한마디로, 학업 성적이나 커뮤니티 봉

정도의 대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미국대학건강협회는 미 전역 153개 대학, 10만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물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항상”의 사람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우리교회에서 제법 오래된 교우들은 다 나의 좌우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라는 것을 안다. 나는 20대 청년의 때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 커다란 돌비석을 보고는 우뚝 멈추어 섰다. 그 돌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목월” 시인이자 장로였던 박목월 선생의 여덟 자로 된 시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야, 하고는 마음으로 평생 붙잡고 살게 되었다. 얼마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엡6:24)라는 말씀에서 “변함없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았다.

사실 내 속에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려는 마음이 죽 끓듯이 일어난다. 실제로 말이나 행동으로도 일관성 없이 살 때가 있기도 하여 부끄럽다. 그래서 더욱 “비가 오나 눈이 오나”를 붙잡고 “변함없이”를 붙잡는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는 것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한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한 아내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한 국과 미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타락한 세상은 이랬다저랬다 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라 하던가?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또 바꾼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탄의 전략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이 쫓기면 대개 사탄의 꾀계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사탄은 여기서 잠깐 저기서 또 잠깐 머물다가 또 떠나게 만든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악인의 특징이잖은가?

성경의 인물 중 욥은 1장에 보면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면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대표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지도 모른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은 일곱 명의 아들과 딸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의 잔치가 끝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반찬을 드렸다. 혹시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다.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물증이 아니라 심증조차 없는 상태에서도 혹시 몰라서 하나님께 반찬을 드려 용서를 구하는 태도야말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막상 성경의 다음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되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1:5). 욥이 얼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욥은 감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욥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욥은 그야말로 “항상”의 사람이었다.

오늘 교회에는 이와 같은 “항상”의 사람이 필요하다. 기뻐하는 것은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항상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 항상 사람이 되는 데에는 많은 인내를 요한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는 서리집사일 때에도 교회의 일이라면 곳은일도 마다치 않고 열심히 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펴서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예배 후에는 모든 쓰레기를 도맡아서 하며 갖다 버렸다. 그래서 그의 와이셔츠는 항상 젖어 있었다.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늘 그랬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안수집사가 되려고 저야 단이라고 했다. 그래도 꾸준히 봉사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안수집사가 되었다. 안수집사가 되고나서는 더 열심히 봉사하였다. 그러니까 장로가 목욕라고 뒷말들을 해왔다. 남이 뭐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일만 할 뿐이었다. 결국은 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 변함이 없이 겸손하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더니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런가 하면 결핍하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은 자신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는 다른 아니라 참신자 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변함없이 지킨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전 세대에서는 결혼하면 거기서 끝이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켰다. 지금 세대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혼율에 있어서 엇비슷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지사충성(至死忠誠)한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그렇게 섬긴다면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변할 것이다. 세상은 항상 사람, 변함없이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6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퍼거슨사태 1주년... "선서수호자 등장"

(1면에서 계속)

지역 일간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퍼거슨 주민 그레그 힐데브랜이 자신의 가게 위에서 총을 메고 경찰을 하던 OK 회원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기사를 썼다. 자기 가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에게 왜 올라가 있는냐고 묻자, 거리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정말 난처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옥상에 있는 것이 사실 훨씬 더 편했죠."

미주리 OK 감독인 존 케리만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퍼거슨에게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총을 압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 미주리 법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들이 퍼거슨에 나타나자 시위대는 OK 회원들을 "KKK라고 불렀고, 우리는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정도 지나자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폭동으로 약탈당한 상점을 판자로 막는 것을 도와주던 OK 회원들은 경찰이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퍼거슨을 떠나야 했다. 이번 달에 마이클 브라운 1주년 기념하는 기간, 다시 퍼거슨이 폭력적 시위로 휩싸이자 케리만은 회원들과 함께 다시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났다.

"우리는 시위대와 함께 밤새도록 지내며 우리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왔다고 설득했습니

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중에는 OK 회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벌어진 언쟁을 보여준다. "흑인들을 보호하는 건 어때요?" 라는 질문에 OK 회원은 "누구의 목숨이든 중요합니다, 그렇죠"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인트루이스 지방 경찰청장 존 벨마는 OK가 나타난 것은 "불필요했고 선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경찰청은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죄를 지어 중이라고 밝혔다.

OK를 비판하는 흑인 단체(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는 이 그룹을 "극단적으로 반정부적이며, 군대 같은 조직"이라며, 이 조직 창립자 스튜어트 로드스 씨를 "극단주의자" 목록에 올려놓았다.

OK는 KKK같이 인종차별주의 조직은 아니라고 SPLC의 선임 연구원 마크 토크 씨는 말하지만 "백인 남자를 4-5명이 흑인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시위대로부터 신문기자를 보호하

안락사를 옵션으로 여겨...80%가 말기암 환자

(1면에서 계속)

네덜란드에서 정신상태에 근거한 안락사 요청을 수용하는 사례는 아직 매우 드물다고 네덜란드 연구의 저자는 말한다.

뉴욕대 랑몬데키센터의 배론 러너 교수(생명윤리)는 우려를 표한다. "안락사를 승인하는 의료진이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다른 모든 옵션을 검토해본 뒤 최후의 보루로 안락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지가 의문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안락사 승인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도 명시해두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먼저 의사 두 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엔 의료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윤리학자, 정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별 안락사 시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모두 안락사를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언제든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정신질환에 근거한 안락사의 경우엔 또 다른 의료진의 3차 소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총 3명의 의사에게 승인을 받기까지는 종종 수년이 걸린다. 챔베레 박사에 의하면 말기암처럼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케이스들은 수일 안에 안락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챔베레 박사는 벨기에에서 안락사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안락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말

했다고 중무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표현한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울부짖으며 큰 총들을 가지고 왔으니, 실수로 총에 맞는 사람이 없기만을 바라야죠."

하지만 OK의 지도층은 조직이 민병대나 반정부 조직, 혹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1년 "Reason"과의 인터뷰에서 스튜어트 로드스 씨는 자신이 설립한 조직을 극우조직이라고 규정하는 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저의 조부는 멕시코 사람이고, 아파치 인디언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절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흑백간의 갈등이 아직 아물지 않은 퍼거슨 시에 등장한 OK의 존재나 역할 규정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총기 즉 무장 상태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미국 백인들의 생각은 분명히 말세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BBC는 경고한다.

했다. 일례로 환자들이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강요한다거나 의사들이 특정 환자에게 왜 안락사 승인을 내릴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거나 하는 보고가 없었던 것. 다만, 가족들이 안락사를 반대한 사례는 있었다.

챔베레 박사는 "안락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가는지는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남용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보급과 더불어 부모가 학생의 일상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학사과정까지 개입하는 부모들 때문에 생겨났다.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자식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며, 나름의 독립된 공간을 갖도록 해주고, 자식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혹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조언도 있다.

이제는 잔디깎기 부모(lawn mower parent)까지 등장하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부모를 이르는 말로 사용한다. 잔디와 잡초가 커서 아이들이 넘어질 것을 염려해 미리 잔디를 깔끔하게 깎아버리면 편안함, 안전함의 시각에서 부모 당사자는 나름의 위안이 있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평생 잔디 깎기 부모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나중에 터질 폭탄을 키우고 대처능력은 키우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위험성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당장 힘들더라도,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패하면서 무릎이 까이더라도 문제의 중심에서 위기를 맞보면서 커나가는 것이 헬리콥터식 양육을 극복하는 길이 된다!

'헬리콥터 부모' 자녀는 병들고 있다!

(2면에서 계속)

△84.3%: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60.5%: 매우 슬프다. △57.0%: 매우 외롭다고 느낀다. △51.3%: 불안에 빠져서 너무 힘들다. △8.0%: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동 설문은 미 50개 주내 대학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이기에,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는 단지 아이비리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바로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정신 건강이 이처럼 침해 받고 있는 것은,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학구적인 측면으로만 몰아 부친 과도한 교육열(?)에 있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통계나 연구들이 부모의 과잉교육열이 즉 헬리콥터식 양육의 위험성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다.

미 전역에서 300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2010년 연구(Psychology professor Neil Montgomery of Keene State College in New Hampshire)에 의하면, 부모의 통제를 받다가 갑자기 그러한 간섭과 통제가 사라지자, 소위 "자유로운 늑대"가 된 신입생들의 순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잘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 연구 by Terri LeMoyné and Tom Buchanan at the University of Tennessee at Chattanooga) 역시 300명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대학생들이 너무 쉽게 좌절이나 우울 증세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헬리콥터식 교육은 미국 십대들을 온전하게 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고칠 방법은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이들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욕심이나 바람을 아이를 통해 이루어는 동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건전한 정신 건강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단어가 너무 많다고 항의하는 부모도 있고, 아이의 자리 배치에 불만을 품고 교사에게 전화하는 부모도 있다. 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시지 빵 안에 셀러드 한 장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성적 체점에 불만을 품고 교장에게 메일을 보내는 부모, 교사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갈취라고 교장실에 전화하는 부모, 말쑥 꾸러기 아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교사를 탓하는 부모, 전자과가 걱정된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학교에 전기 기술자를 보낸 아버지도 있

다.

이러한 부모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자녀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녀 양육은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적



항상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헬리콥터 부모들은 돌 무렵부터 아이들에게 영어, 요가, 수영 등을 가르치고 값비싼 사립 영어유치원에 보내기도 한다.

2012년 438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the Journal of Adolescence)를 보면, "헬리콥터 부모들의 감압적인 양육은 성년으로 가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발달을 보여, 자력적인 장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술들이나 책임감들을 저해한다"고 나와 있다. 또 2013년 297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도, 헬리콥터 부모에 의해서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심각한 수준의 우울 등과 낮은 자존감으로 빠져 자율성과 역할 분담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됐다.

한마디로, 과도하거나 지나친 자녀 양육은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복리에 영향을 줘, 항상 부모에게 상의해야할지 아니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결정을 해야 할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로 보내주며, 언제까지 숙제를 내야 하고 어떠한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활비를 내주고, 결정을 해주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책임을 지고, 학교 행정 당국과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하고 직업을 갖게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방황하게 된다. 부모와 떨어진 다 큰 어른이 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밖에서 볼 때는 말쑥하고 완벽한 과잉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대학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정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급생과 룸메이트가 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학기말 리포트를 다시 써오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고, 여름방학을 맞아 섬머스쿨을 수강해야 할지 아니면 커뮤니티 봉사를 나가야 할지, 대처를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런 양육은 최선이 아니다.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립심이나 사회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겁도 많아 결국 사회에 나가면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고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자녀 교육에 조바심을 내는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즉 교육은 경제 개발처럼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직관과 유머, 여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친구나 파트너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놀아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결론으로 부모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 자식 주변을 맴돌며 온갖 잔소리와 개입을 일삼는 "헬리콥터 부모"는 아닌지, 지나친 염려를 기반으로 자식 앞에 생기는 장애물도 미리 치워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잔디깎기 부모"는 아닌지.

헬리콥터 부모나 잔디깎기 부모나 모두 자식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성장 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부모들은 나름 그것이 자신이 자식을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식 앞에 침묵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으로 핸드폰의 급격

'시편' 은에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25편: 나의 생각이 안식할 동지를 틀어라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같도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떠올리면 우선 산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산은 고민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찬바람이 지나가도 산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자연의 때를 기다리면서 겨울을 버티고 가는 그 산. 때가 되면 그 산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자연의 능력을 그 산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삼척투성이일지라도, 산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보라,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하여 가꾸시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라고 하신다. 공중의 나는 새는, 백합화는, 들풀은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계절이라는 자연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듯이, 산보다도 더 귀한 자녀들을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수한 약속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는 현재 어려움이 왔다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연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이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신과 고통에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우뚝 서서 살도록 노력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산과 같이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 아버지는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삽시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믿고 살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속에 울리는 두려운 소리, 불안한 소리, 절망을 이루는 소리, 이 소리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삽시다.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음성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가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2015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4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수여자 발표 신청서류 보낼곳	2015년 10월 31일 2015년 12월 15일 ,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목자 잃은 양

예수님 당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양을 본적이 없고 목자가 되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사람의 부의 척도를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이렇게 표

현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가족이 양이었다. 양 애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하면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양은 제 몸 보호할 무기 하나가 없다.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도 없다. 힘센 황소의 뿔도 없다. 말처럼 뒷발질도 할 줄 모른다.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다. 조그마한 비탈진 길을 가려면 올라가질 못한다.

뒤에서 목자가 밀어주어야 된다. 어린 새끼 양은 아예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언덕을 올라가야 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다. 털이 많기 때문에 시냇물 소리만 들으면 겁다 도망간다. 시편23편에 보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다. 매일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먹는 풀인지 구분할 줄 모른다. 목초와 목초를 구분할 줄 모른다. 자기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을 못 찾아온다.

제가 어릴 때 산에 가서 소를 먹다가 그만 소를 잃어버렸다. 찾다 찾다 못찾고 영영 울고 돌아왔더니 소가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음메~ 기다리고 있었다. 소는 저 혼자 집에 찾아온다. LA에 어느 집사님이 진땀개를 키우는데 이 개들이 날마다 싸우는데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고 해도 한 번 물은 것

을 놓지를 않고 계속 싸운다. 한 번 싸우면 이 집사님이 억지로 떼어놓기 전에는 끝이 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옆집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신고하고 해서 한 마리만 기르기로 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누가 가져가라고 했지만 큰 개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강통 밴에다 한 마리를 싣고 Freeway로 무려 한 시간을 달려서 밖에 내려놓고 돌아왔단다. 그랬더니 개 싸우는 소리가 없으니 얼마나 조용한지 사람 사는 것 같더라.

그런데 한 달이 훨씬 지난 뒤에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바깥 마른 개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집사님을 반기는데 보니 바로 그 개더라. 어떻게 찾아왔는지 한 달이 훨씬 지난 뒤인데도 자기를 버린 주인인데도 주인집을 찾아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양이란 동물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어디로 다니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양은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만 모든 가족 가운데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가장 더러운 짐승이 양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덮어두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목사도 가까이 가 보면 냄새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후배 파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 어디 목사뿐인가?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

이 땅에 목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세상의 더러운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먹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험악한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전신만신 나를 찌르는 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유혹의 가시덤불 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자처럼 맹한 자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샅꾼 목자도 있다. 도착때가 나타났는데도 맹수가 나타나면 저 혼자 살기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목자 없는 양이어서 고생하며 기진할까 아닌지 모르겠다. 속히 목자를 찾아야 한다. 양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목자 가까이 있는 것이 지혜다. 목자를 멀리 떠나면 떠날 수도 위험수위가 높아진다.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 되기를 바란다.

푸/른/초/장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에서 “대-한국”을 열광적으로 외치게 만든 영웅 중의 한 사람, 우리 한국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는 축구 변방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예선 통과,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일약 축구 스타의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

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한국 선수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량이나 실력 면에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상대해왔던 선수들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바른 마음 자세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은 몸값이나 더 올리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기나 끌려고 하고 감독한테 대들고 다른 선수들과도 잘 싸우는데, 한국 선수들은 월드컵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여 감독이 하라는 대로 무엇

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한 결과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를 잘하려고 해도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먼저 마음의 ‘마인드 베이스먼트’(mind basement),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전혀 은혜와 복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

는다고 예수님께 대들며 은혜와 복을 받을 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주의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15:16-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받았습니.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타락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타락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을 때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서독 마

에 담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고후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사람인척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생각만 있고, 권력이나 힘에 대한 모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주인공 같은 모습, 세상 스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하셨습니다? 셋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 때는 두려운 마음에 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어 용감한 증인이 되었습니까? 마가요 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만 힘썼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짓누르던 죄를 언제 고백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내 마음 속을 괴롭혔던 미움을 언제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불안과 공포, 좌절감과 낙심을 언제 평강과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불안과 공포, 좌절감과 낙심을 언제 평강과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3. 영화 감상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의 논증과 교정

1) 폭력성

폭력적인 장면과 욕설들은 감상하는 자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영향을 받아 그런 장면을 모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이 동일한 폭력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런 폭력적인 영화를 제한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시청함으로써 폭력적인 성향을 띤다는 것을 일반화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의 폭력들은 연출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나 도덕 사회에서 이런 폭력들은 비판의 대상이며 또한 처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폭력이

2) 성적 욕망

영화 속의 장면들은 음란한 마음과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람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화 속의 성적 장면들이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게 한다면 관람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장면을 영화로 만들 때 그것은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여 만들어지며 배우들이 실제로 생식의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의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죄악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배우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배우들이 성적 장면을 촬영할 때, 자신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영화촬영에 임하는 것은 당연시 합니다. 죄악된 행위를

의해 합니다. 모든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건전한 영화가 오히려 훨씬 더 신앙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영화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칸트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진리인 것처럼 소개하는 영화가 기독교 신앙에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Disney) 영화 라이온 킹(Lion King), 포카혼타스(Pocahontas)와 같은 영화들은 힌두교 사상이나 뉴에이지(New Age) 사상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전쟁 부추기기, 동성연애, 사형제도 폐지, 유물주의 허용 등과 같은 영화를 감동적으로 제작하여 상영할 때 그 피해는 폭력과 선정적인 성적 내용의 영화보다 훨씬 악한 영

업에 우리의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분량에 합당한 적절한 만큼의 영화 시청을 즐기는 것을 죄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알고 세상을 분석하고 대처하려는 자세로 문화의 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4. 영화에 대한 사상 평가

영화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철학,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의미 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영화들은 대개 그 영화가 속한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구문화는 근대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반기독교적인 세속 문화의 지배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도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그리스도인의 영화문화 이해 (하)

라도 우리가 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산속이나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접촉해서 알고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의 가인이야기, 모세의 애굽 사람에 대한 폭력행사, 사사기의 잔인한 전쟁이야기들 등,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수난은 폭력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딤후 3:16-17).

폭력을 통해서 타락한 악인의 결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을 묘사하는 영화들의 내용이 우리를 교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폭력적인 장면들은 때때로 폭력의 실상을 자각하고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폭력 모방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죄악된 행위를 일으키게 한다는 논리는 유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 이런 영화를 관람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피해야 마땅하지만,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화의 흐름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도는 이런 영화를 관람할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분량에 따르는 분별력과 선택의 기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세속적인 인생철학의 오염

세속적인 철학내용을 가진 영화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를 관람하지 않아야 할 가장 위험한 영화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장면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현대 영화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화계가 분류한 R등급(17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 동반) 영화나 X 등급(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뿐 아니라, G 등급(모든 관객 관람) 영화도 똑같이 주

향을 미성숙한 기독교인들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인생철학에 무지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사상을 안고 있는 마귀의 계략에 무지해서는 안되며 그 계략을 잘 알고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후2:11).

4) 불신앙적 산업 육성

비도덕적이고 불신앙적인 산업에 우리의 돈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증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경건한 산업과 기관을 찾아서 그것만 지원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시대에 세금은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 시장의 음식들은 거의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일이 알아보고라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묻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산업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사상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산

덕성과 가르침이 존경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상은 세속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생각은 '평등'이란 용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평등이란 단어는 기독교나 자유주의 모두가 중요시 여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평등은 결코 성경적인 형태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역할, 가난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의 차이 없애기,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인 제재 없애기 등 도덕적인 상대주의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남성과 여성의 분명한 차이와 역할을 말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를 없애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의 비도덕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든지 성경의 인격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버림을 받는 평등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자유주의는 도덕적인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혼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7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오늘날 국가가 결정할 법과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 시민 불복종운동이 미국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 성경적인 예가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론토에서 미셀

A: 시민 불복종 운동은 정당하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그자체가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정부나 정치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민적 힘을 행사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전 미주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였으나 일부 도시와 비즈니스 하는 개인들이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 양심의 이유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미국 소설가 데

출1:15-22, 행4:13-5:18... 시민 공감 얻는 최후 방안 등 요건 충족해야

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입니다. 그녀는 1840년 후반에 정부가 주도하는 멕시코전쟁을 반대하면서 인두세 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양심에 따라 행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 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1850년대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들은 도주 노예 상환법(Fugitive Slave Law)을 거부하면서 숨어 들어온 노예를 넘겨 달라는 노예 추적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모두 양심에 따라 국법을 거부한 일종의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양심에 의한 대규모 시민 불복종의 예는 1950년대 중반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는 흑인 민권운동이 있었는데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내에 비어있는 백인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일로 시작된 소위 버스 보이콧 사건은 킹 목사의 주도하에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킹 목사는 인종을 차별하는 법은 지킬 수가 없으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스타기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 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미 전역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켰고 결국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인종차별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시민 불복종의 예가 더러 있는데 애굽의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 낳아를 출산하면 다 죽여 버리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부한 것이라든지(출1:15-22)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산헤드린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된 예가 있습니다(행4:13-5:18).

그러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신원하 목사의 말에 의하면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불복종운동은 특정한 법이나 정책이 국민에 의해 공정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둘째, 시민 불복종운동은 특정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최후의 방안이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공개적인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넷째, 비폭력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법이 정해놓은 형벌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임목사청빙

워싱턴주 씨애틀에 위치한 시온장로교회(PCUSA)는 자체교회당을 소유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30년을 시무한 담임목사의 은퇴로 후임목사님을 다음과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 1. 신학교 (M.Div.) 졸업하신분.
2. PCUSA 교단소속이거나가입가능하신분.
3. 담임목사 5년이상하신분 (부목사경력포함).
4. 한국어,영어설교가능하신분.
5. 미국체류에결격사유가없으신분.

* 제출서류 *

- 1. 이력서(한국어,영어각 1부사진포함)
2. Personal Information Form(www.pcusa.org에서다운가능)
3. 목사안수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4. 신학교(M.Div)졸업증명서
5. 신앙고백서(Statement of faith)
6. 신앙여행서(Journey of faith)및자기소개서(가족,내가만난하나님,목회자가된동기)
7. 목회소견서(목회계획,목회철학,목회 Vision)
8. 추천서 2부

* 보내실곳 *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청빙위원회)
17920 Meridian Ave, N. Shoreline, WA 98133
Email: zionpnc@gmail.com
* 서류마감일 : 2015년9월 26일
* 문의: 시온장로교회청빙위원장송광우장로
* 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시온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SE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신 청 유 형, 구독자 이름, 영 어, 배 달 주 소, 전 화 / Fax, 받는 분 이름, 전 화 번 호 / Fax,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롤라키(LOLAKI)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 중 하나이며 300개가 넘는 독특한 부족들이 이곳에 있으며 대부분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다. 위치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며 인도네시아의 수

많은 섬들이 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해로를 열어주며 이 섬들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42,900명의 롤라키 인들은 슬라웨시 섬 남쪽에 위치하는 대 인종그룹의 하나다. 그들의 언어는 롤라키 (lolaki)라고 부르며 민족이름과 동일하게 알려져 있다. 슬라웨시 섬 북부지역의 롤라키(Lolak)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롤라키 인들은 빙코카(Bingkak)족을 포함해 수많은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까운 이웃 판카나(Pan-cana)와 마로네네(Maronene)부족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모습 슬라웨시 섬은 약 3천5백 마일가량의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큰 섬이다. 섬은 네 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깊은 만에 의해 분리되었다. 이 중 2개 반도는 남쪽으로 뻗어있고 나머지 2개는 북동쪽으로 뻗어있다. 슬라웨시 섬의 고봉 롬포바탕(Lompobatang)산은 섬 남쪽에 위치하는 휴화산으로 높이가 해발 9,419피트다. 기후는 열대성이지만 고지대와 인접한 바다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롤라키 족들은 화전에서 경작한 주 농산물이 옥수수이며 고구마,

사탕수수, 아채, 담배 그리고 커피도 재배한다. 흩어져 있는 가옥들은 초가로 엮여 만든 높은 지붕으로 보통 말뚝위에 지어져있다. 상류층, 중류층 그리고 평민들로 구성된 독특한 사회계급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회계급마다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따른 행동강령이 있다. 전형적으로 한 지방은 촌락의 영역들로 분리되며 토지사용권한은 촌락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모든 영토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위원회가 유지한다.

결혼은 신랑이 신부가족에게 약혼 때와 결혼식 때 돈을 지불한다. 신부 값을 지불하는 금액은 신랑의 신분과 따라 달라진다. 결혼 전 신랑은 신부 가족에게 일정기간 의무적인 봉사를 한다. 이러한 의무적인 봉사를 피하기 위해 많은

젊은 쌍들이 도주한다. 과거에는 노예들과 그 후손들의 통거는 허락됐지만 결혼이 금지됐다. 또한 귀부인들은 평민들과의 결혼하지 않았다. 일부다처제가 귀족들에게 허용됐지만 지금은 매우 드물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8백만이 넘는 농부들이 토지가 없다. 정부는 인구 밀집지역에 사는 이들을 아직 개발이 미약한 섬으로 이주하는 자에게 무료로 토지를 제공하고 집과 기타의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

신앙 오늘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그러나 14세기 이전에는 힌두교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발리 섬의 오직 소수만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4%는 기독교이고 주로 개신교 신자들이다. 많은 중

국인들은 불교와 도교를 따르고 있다. 오지에서는 정령숭배하는 부족들이 많이 있다. 1600년도 이후 이 섬은 이슬람이 지배적이었으며 롤라키 족들의 95%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토속 종교가 아직도 이들에게 중요한 신앙이며 특히 악령을 믿고 있다. 롤라키 족의 1%는 기독교 신자들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2천여 롤라키 성도를 위해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태다. 최근 이들 원주민들을 위한 2개의 선교기관이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원주민들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성경과 기타 선교 자료들이 번역돼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인기 1위 트럼프 대선후보 지명 가능성은 쫓겨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 중 지지도 1위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정작 본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스뉴스가 지난 11-13일 공화·민주당 예비선거 유권자 등을 포함한 전국 1천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앤더슨 로빈스 리서치와 쇼 앤드 컴퍼니 리서치와 공동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폭스뉴스가 지난 6일 클리블랜드에서 연 첫 공화당 경선주자 TV토론 이후에도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지지도는 25%로 굳건히 1위를 유지했다. 토론 전의 26%에서 1% 포인트 떨어졌을 뿐이다.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발언 탓에 여성들의 지지도는 21%에 그쳤으나 남성은 28%에 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트럼프의 지지도가 1% 포인트 하락한 것은 맞지만, 여론 조사의 오차범위나 지지를 수준을 감안할 때 견고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경외과 의사출신의 벤 카슨이 12%로 2등을 차지했고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10%로 3위로 나타났다.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도 3% 포인트 올라 5%의 지지도를 보였다.

WP는 토론회 이후 5% 포인트 상승하며 2위로 급부상한 카슨을 최대 승자로 꼽았다. 카슨은 토론회 내내 조용하게 있다가 토론회가 끝날 무렵 자신이 '삼쌍둥이' 분리 수술을 한 유일한 사람임을 거론하고 강력한 맺음말을 남겼다고 WP는 논평했다. 이 신문은 반면,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혀왔던 켈리 피오리나 주지사의 지지율이 6% 포인트 하락, 3위로 떨어진 것에 주목했다.

WP는 공화당 유권자 42%가 트럼프, 카슨, 피오리나와 같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전했

다.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을 상대로 누가 대선 주자가 될지를 묻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카슨이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카슨이 1등을 차지한데 이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켈리 피오리나 전 주지사,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의 순서였다. 반면, 인기가 가장 좋았던 트럼프는 쫓겨나 있었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자격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켈리 피오리나가 67%로 1등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62%를 앞서는 결과였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9%로, 30%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이는 2주 전의 51%대 22%에 비하면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이다. 샌더스 돌풍이 만만치 않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10%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 발굴팀, 블레셋 '가드 성벽' 첫 발견

한국인 성서고고학 발굴팀이 최근 이스라엘 중부 텔 자피(Tel Tzafit)의 가드 유적지에서 2900년 전 블레셋의 성벽을 발견했다. 사진은 발굴 작업에서 드러난 성벽(왼쪽)과 발굴팀장 임미영 박사.



이שראל 중부 텔 자피(Tel Tzafit) 유적지에서 한국인 성서고고학 발굴팀이 2900년 전 블레셋 도시의 성벽을 발견했다. 그동안 블레셋 도시들이 드러난 경우는 있었지만 성벽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 자피는 성경 지명상 '가드(Gath)'에 해당한다.

한국 발굴팀장 임미영(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사는 13일 "주전(BC) 9세기로 추정되는 두께 2.2m의 거대한 돌들이 놓여있는 흔적을 비롯해 30m 길이의 벽을 발견했다"며 "이는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했다는 것과 역대하 26장 6절에서 웃시야가 가드의 성벽을 파괴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박사에 따르면 거대 돌은 성벽과 연결돼 있다. 또 4m 두께의 탑을 연상시키는 구조물도 함께 발견됨에 따라 거대 돌은 성문(城門)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박사는 "이는 당시 블레셋의 중심지가 가드였으며 규모가 큰 도시였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 고고학계에서는 가드가 작은 도시였으며 이스라엘 역시 소규모 도시국가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도시들이 혼합집중지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가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가자지구)와 함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다. 가드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삼상 17:4)이기도 하다. 성서고고학계는 그동안 가사를 제외한 4개 도시들에서 블레셋인들의 토기와 함께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다.

임 박사는 "올해 발굴에서는 블레셋 시대의 철기 제조 작업장도 발견돼 성경에서 블레셋인들이 철기를 다루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가드는 BC 9세기 시절 요새화된 철기 제조장을 갖춘 거대 도시였다"고 말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13:19-22)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엔 대장장이가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삼, 도끼, 괭이 등의 철 연장이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 마을로 가야 했다.

텔 자피 유적지는 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교 아론 메이르 교수의 지휘 아래 1996년부터 발굴이 진행돼 온 곳이다. 임 박사는 2001년부터 이곳에서 발굴지도자(supervisor)로 활약하면서 7년 간 한국 학생들과 함께 발굴 작업을 해왔다.

이번 발굴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서울신대 신대원 2명, 성서대 대학원 1명, 한국문화재청 연구원 1명, 히브리대 유학생 3명 등이 참여했다.

나이지리아서 보코하람 추격 폭탄테러...47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11일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47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추정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2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30분경 동북부 사본가리 지역의 한 소시장 인근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적어도 47명이 목숨을 잃고 5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이지리아군의 한 관계자는 "한 여성이 시장에 있는 한 가게에서 자신의 몸에 부착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보코하람을 겨냥해 군사 작전을 펼쳐 온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폭탄 테러도 보코하람이 저지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인접한 카메룬에서도 같은 날 무장단체의 공격이 있었으나 카메룬 군대가 이를 격퇴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카메룬군은 아슈가쉬아 지역에서 무장대원 10명을 사살했으며 정부군 소속 군인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5개국을 보코하람 등 무장단체에 맞설 지역 연합군 8천750명을 이 일대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이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보코하람은 각종 잔학행위로 지난 6년 동안 이 일대에서 2만여 명을 숨지게 하고 약 15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카메룬에서도 최근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테러가 잇따라 수십 명이 숨졌다.

지난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보코하람을 분쇄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워 당선됐다.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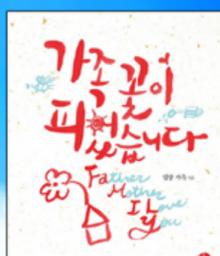
-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 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 아멘넷(뉴욕, 미국)
-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추천도서



임양가족, 흥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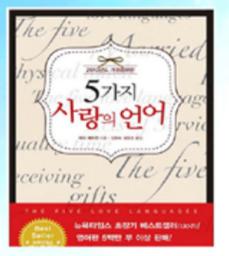
일리스터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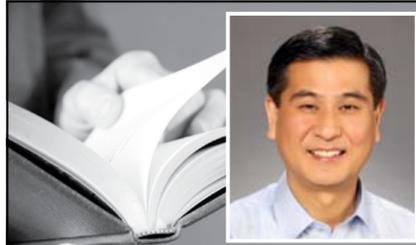
데이비스 케넌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후원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교부 (15) 변증 교부, 라틴학파(2)

‘광복절’은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다’는 깊은 의미를 지닌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였다. 후손들에게 자유와 독립국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확신 속에 피를 흘리며 희생하신 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또한 광복절은 영적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것이다.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다. 마음으로는 신앙을 지켰으나 외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다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켰다. 일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선 땅을 떠났다. 문제는 해방을 맞은 후의 교회 내에서 세 부류의 성도들 사이에 생겨난 긴장감이다.

질문: 로마황제의 핍박을 받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신앙적 갈등이 있었나?

1) 교회 역사를 보면

■ 키프리안

티툴리안으로부터 출발한 라틴 교회의 전통이 키프리안(Cyprian, 200? -258)에 이르러 든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키프리안은 카르타고의 부유한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고등교육을 받은 그는 법학을 전공하여 법률가로서 활동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받은 후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직 신앙을 실천하는 삶에 몰두할 것을 다짐하였다. 246년에 생긴 일이다. 회심을 체험한 2년 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다. 사실 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교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초신자에 불과한 그가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그의 실력과 신

앙적 신실성이 인정된 것이지만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249년, 교회의 지도자였던 키프리안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다. 데치우스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였는데, 한국의 신사참배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황제는 기독교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기원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로마의 법을 어길 어떤 힘도 없었다. 결국 성도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칙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성도들도 있다.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주어졌던 키프리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당연히 순교의 열정으로 교회를 지켰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떠나 피신 길에 올랐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그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던 일이었다.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 타 교회 주교들과 성도들은 순교의 죽음을 선택하였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양떼를 떠나 자리를 이탈한 목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키프리안이 피신한 동기가 단순히 순교의 죽음이 두려워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는 258년에 기쁨으로 순교의 잔을 마셨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목숨보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던 그였다. 단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교회지도자의 영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비록 육

체적으로는 자유의 몸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어려 환경에서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던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었다. 계속적으로 편지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며 영적 지혜를 공급해주었다. 그의 순교는 당대와 후대에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다. 후에 어거스틴은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 여러 편의 설교를 행하였다.

양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키프리안을 대표하는 글은 박해가 끝난 직후인 251년에 작성되었는데, “배교자들에 관하여”와 “교회의 일치”이다.

배교를 비성경적인 행동으로 규정한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교를 선택한 자들은 회개하고 자속할 것을 권유하였다. 배교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나름 강경하였다. “거룩한 것을 떠난 자에게

■ 배교자들에 대한 반응

키프리안은 251년에 박해가 마치자마자 카르타고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해방을 맞은 후 한국 교회가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은 자신의 입장과 달리한 성도들이 배교를 선택한 것이라며 결코 교회가 이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다. 비록 그들이 기원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 양심을 굳게 지켰다고 고백한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까? 박해의 자리를 피하였던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어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후에 교회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신앙과 교회에 대한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었다.

키프리안은 많은 글과 편지를 남겼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신학적 영향을 주었던 티툴리안과 같이 변증적인 글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리를 수호하였으며, 성도의 도덕적인 삶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글을 통해서 실천적인 신

는 구원의 은혜가 솟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준 ‘배교의 죄를 범한 자들의 예로서, 주님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때 그를 떠나신다는 것과, 그가 성찬을 받더라도 그것이 무자격자에게 구원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배교자들에 관하여, 26). 그렇다면 교회가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모든 배교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자속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극한 상황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배교한 경우와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배교한 자들을 구분하여, 자속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이 모든 신앙의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 당시 배교자들을 용서하는 권한이 신앙의 지켰던 고백자들에게 있었다고 믿어 그렇게 실천하는 일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 교회는 하나

키프리안은 현재 로마가톨릭교회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가 제시하였던 로마주교의 수위권 때문이다. 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였지만 수위

권은 베드로에게 수여되며, 교회와 권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이신다... 베드로의 권좌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어떤 터에 세워지며, 그는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교회의 일치, 4). 그가 말하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말한다. 나무에 가지가 많지만 한 뿌리가 있듯이, 여러 물줄기가 합쳐 큰물을 이루듯이, 태양과 빛이 구별될 수 없듯 예를 들으며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키프리안은 주저없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권위와의 일치이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적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키프리안의 교회관은 무교회주의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애석하게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났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그의 교회론에는 베드로의 수위성에 기초한 가시적인 교회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향후 로마가톨릭은 그의 교회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교회를 찾아온 위기는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성경적인 모습으로부터 크게 이탈하게 할 수도 있다.

2) 성경이 보인다. 롬8:35-39; 요6:37-40; 눅22:24-34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보존하며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다. 신앙을 지닌 이후 달라진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그 앞에 놓여있던 문제들이 모두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가? 아니다. 문제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핍박과 순교를 포함하여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현재 내가 구원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치며 성도를 양육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가뭇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후에 다시 돌아왔다.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 단지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배교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개인 또는 타인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신앙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있는 정직한 모습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핍박에 피신했던 키프리안, 배교자 아니지만 교회관엔 문제 신앙의 문제 여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에 관심 가져야

자가 없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교회의 중요성 내지는 교회의 일치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속해야 할 ‘가시적인 교회’를 말한다. 어떤 이유라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는 자는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는 외인이고 대적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 모실 수 없다. 노아의 방주 바깥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의 문 밖에 있는 자도 피할 수 있다”(교회의 일치, 6).

이러한 주장 뒤에는 교회의 일치를 거부하는 이단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로마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떨어진 노바티안(Novatian)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한 편지에 있는 노바티안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와 동일한 신조도 동일한 세례 문답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서간집, 74.1).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가시적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단들에게 세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성령께서 이단들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가시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쳐야만 했는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엘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꿈을 통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곳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야곱은 압박강을 건너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한다. 그러던 어

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서원을 갚지 않느냐고 책망하셨다. 그때서야 정신이 든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 서원을 갚게 된다.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나 지켜야 한다(민30:2).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면 서원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전5:4-5). 정말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갚아야만 하는가?

자식이 없는 한나는 브리나에게 딸시 천대를 받았다.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이다.

그러자 한나에게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 것이다). 아들을 낳긴 받았는데,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었다.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기도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가?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맡긴다. 사실 젖을 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야겠다고 했을 때(삼상1:22)에는 은근히 남편이 반대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는데, 남편이 그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아지만, 말할 때까지, 철 날 때까지

만, 학교 갈 때까지만...” 하면서 계속 미루었을 텐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 한나는 무정할 정도로 무자르듯이 사무엘을 젖 떼 때까지만 딱 키우고 하나님께 바쳤다. 자신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다.

역시 한나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남편도 한나 못지않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인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것도 한나이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도 한나이고, 그 서원을 갚은 것도 한나이다. 그런데 남편 엘리가 무슨 일을 했기에 그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인가?

한나가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서 원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야겠다고 했을 때(삼상1:22)에는 은근히 남편이 반대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는데, 남편이 그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아시나니 이 아이들이 저만의 아들

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데 저 혼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남편은 예상과는 다르게 흔쾌히 허락을 했다(삼상1:23). 그래서 한나도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반대한다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한나는 사실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상상해 보았던 것처럼 남편이 반대했다면 사무엘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민30:11-15).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려야 했던 것은 남편 엘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결국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야 했던 것은 그녀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 엘리가 그녀의 서원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나의 믿음만 이야기할 한다. 그러나 남편 엘리나도 한나 못지않게, 아니 한나 이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5면에서 계속)

(보편성을 쉽게 받아들이면 그 보편성이 절대자가 되어 결국 이상을 배라고 부르는 환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도덕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늘 독단주의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독단주의가 실패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임시

적인 상대주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주의적인 윤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절망과 비관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상대주의가 아니라 독단적인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독단주의는 거짓된 희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화의 내용에

서 도덕적 상대주의와 독단주의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않는 영화 속에서도 기독교적인 주제와 함축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기독교적인 영화 제작자들도 기독교의 계시에 담긴 극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압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그 제작자들은 그런 진리들이 어떤 시점에서 작용하도록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대부분은 평등과 상대주의, 독단적인 이상을 배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5.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대할 때 해야 할 질문들

1) 이 영화의 감독과 제작자는 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신학교의 전 존 프레임(John Frame) 교수와 필자의 스승인 포이츨레(Vern Poythress) 교수는 그들의 영화평론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 적어도 몇 가지 질문과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Theology at the Movies)

1) 이 영화의 감독과 제작자는 누

구이며 누가 각본을 썼는가? 그들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2) 이 영화는 궁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이 영화가 취하는 입장은 사실인가? 정직한 영화는 어떤 관점을 지니든지 요점을 잃어버린 영화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9면으로 계속)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4)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니콜라스 루드비히 본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근대선교를 촉발시킨 모라비안들에 대한 언급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 독일 귀족(백작)으로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당시 유럽의 주류사회에서 거의 이단으로 취급받던 개신교 신자들 집단의 대부분으로 자처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이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방법은 매 시대마다 특별한 몇몇 개인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선교의 촉발점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독일의 체코 국경 드레스덴

비텐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Wittenberg)에서 법학을 전공

95개 질의서를 내걸었던,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말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귀족의 장남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정계에 진출했던 것은 존 칼빈(John Calvin)의 초기 대학 시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법학과 외교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당시 그의 법학 지식은 후일에 그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귀족 진젠도르프, 300여 난민들에게 “주님의 파숫군” 공동체 제공 모라비안 교도들의 혁신적 세계선교 헌신은 가진 자 부끄럽게 해

(Dresden)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용병술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도 그의 성장기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후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당시 유럽사회에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도 남습니다. 생후 6주가 되던 때, 아버지는 병으로 소천한 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독일 루터교 신자였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독일 외할머니는 그 당시 경건주의 운동의 선구자였던 필립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를 손자의 대부로 삼았을 정도로 경건주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일의 할레(Halle)의 중등학교 교육에서도 경건주의를 배웠고, 대학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 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로마 카톨릭 교황을 상대로 상의 그리스도 교회의 태생적

인 약점이 그러하듯이, 종교개혁 운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터교 내부의 요소요소 “세속화”라는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루터교의 교리보다는,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적 교회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루터교는 이미 독일 내부에서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교회와는 또 다른 제도화 된(institutionalized) 루터교회보다는 국가와 분리된 형태의 말씀 중심의 순수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체코 모라비아 지방 출신의 남루하기 그지없었던 300여명의 종교 난민들(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을 진젠도르프와 접촉시켜 주셨습니다. 후일에 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혁신적인 세계선교에 대한 헌신은 그들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전략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진젠도르프는 영국과 화란과 프랑스의 많은 지방을 여행하면서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출세의 기회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Berthelsdorf 한 모퉁이에서 “주님의 파숫군: Herminhut”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체코 출신의 종교 난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득권도 복음이라는 대의를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메일: parkss@grace.edu (계속)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오늘날 요구되는 리더십은?

	모세	여호수아
리더십 스타일	강력한 일인체제, 능력의 리더	강력한 협력체제 공동의 연합 리더십
리더십 선초점	-환경, 자신의 무능력 -리더만이 필요에 민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리더십령	힘겹다. 마음의 심한 소모전으로 밀려오는 절망감, 분노, 충만, 불안 정 되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다	강하고 담대하고 안정된 고요한 심령 말씀으로 두려움 극복
훈련테스크	광야학교/생존	가나안 복지정복
섬기는 회중	- 회중다수가 노예근성 짜들고 하나님을 모른다. 믿음 없는 무지한 회중의 반발이 심함 - 두려움이 부추기는 대로 리더를 핏대 내리다. - 땅(육)에 속한 것에 집중하여 리더를 핏대가 자신도 망하고 어려움 중 고통 가중한다.	- 광야 통과 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수로 광야훈련 거쳐 성숙해진 리더십들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리더를 강하고 담대히 세워 목적 달성 - 리더를 세워줌으로 자신도 전체도 산다 -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약속을 받다. - 온 회중이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모델을 비교해보며 모두가 혼란스런 현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사람의 주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의 회중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자와 방불하였기에 모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맛을 본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가나안 입성 때에는 광야에서 연단된 불타는 믿음을 소유한 사명자들의 무리이기에 저들의 믿음을 연합하여 사명의 일을 나눠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같이 대단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불타는 열정의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무 쓸 것 없는 자기중심의 자의식으로 인한 마귀의 기운빼기 작전에 속아 더 이상 시간 낭비 않고 세월을 아껴서 여호수아의 밝은 믿음의 영을 받아 강하고 담대히 주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양으로 모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리라는 영혼 사명의 사명을 가진 광야학교를 거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들을 불붙여 연합하여 동행할 용감한 그런 단순한 사명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사람들 앞에 연약한 모습에 주눅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회개하며 왕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많으므로 깊이 신뢰하는 동역자로 불이시어 더불어 천국을 이 땅에 많이 펼치도록 인도하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주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주님나라를 힘내어 펼치도록 돕게 하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시간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한 각 목상하고 마음에 새겨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목하며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된 주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기다리시는 영원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철학교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일 ~ 13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4일 ~ 16일 동중교회(주현신목사) 17일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7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8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차) 13일 ~ 15일 사란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중교회(윤성호목사) 26일 ~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4일 ~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6일 ~ 11일 (합동)태백시청 연합성회 12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7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9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7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 26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총회 11일 ~ 13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4일 ~ 16일 동중교회(주현신목사) 17일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5일 ~ 11일 온양감리교회(노광현목사) 12일 ~ 17일 예우림교회(유병희목사) 18일 ~ 24일 (합동)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8일 ~ 29일 천마산기도원(유광석목사)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7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13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21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일 ~ 8일 침윤교회(김대석목사) 9일 ~ 11일 제자교회(유종국목사) 12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1일 ~ 23일 풍산교회(박경순목사) 24일 ~ 27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0일 ~ 1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3일 ~ 15일 침피중교회(김형우목사) 16일 ~ 19일 오신리 최자실금식 기도원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20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일 ~ 15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3일 ~ 28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2일 ~ 19일 주흥교회(최성은목사) 20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2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1일 LA 나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대사) 24일 오벨이어교회(김형제목사) 2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8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송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련 강의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회(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신예배

“광복은 복음” ...OC지역 교계 단체 연합

광복70주년 감사예배 및 축하음악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등 5개 OC지역 교계 단체 연합 광복 70주년 감사예배 및 축하음악회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김기동 목사의 사회로 열린 광복절 예배는 김종대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 기도, 신복수 장로(OC평신도연합회 이사장) 성경봉독, 김영길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광복은 복음입니다’(눅4:16-19)라는 제목으로 “광복은 빛이 다시 회복되는 의미이다. 그래서 광복은 복음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50년 6.25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서게 됐다. 완전한 광복을 이루려면 통일이 되어 한다.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날 완전한 광복절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최승구 목사(OC원로목사회 회장)가 고 안수산 여사와 고 박영창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고 흥사단 LA지부 최창호 회장과 박영창 목사의 아들 박영남 목사에게 전달했다.



사진왼쪽은 일제때 징용에 끌려갔다 광복으로 살아 돌아온 허경삼 목사, 정필흥 목사, 방인호 장로, 사진오른쪽은 이날 공로패를 받은 고 박영창 목사의 아들 박영남 목사(오)와 고 안수산 여사의 공로패를 받은 최창호 LA흥사단 회장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징용을 당해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다가 8.15 광복으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던 허경삼 목사(OC중앙성결교회 원로), 정필흥 목사(로명장로교회 원로), 방인호 장로(전 와이즈맨 한국총재, 평신도연합회 초대이사장)에게 감사와 위로의 꽃다발이 증정됐다.

이어 열린 2부 축하음악회 및 미서부남북종단 사이클 프로젝트 발대식을 윤우경 집사(OC평신도 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남북종단 사이클 프로젝트는 마약중

독, 알코올중독 등 중독자사역을 하고 있는 길갈미션 ‘감사의 집’ 후원을 하게 된다.

음악회는 달리버러스 연주팀(지휘 최은애 자매), CTS TV 여성합창단(지휘 김명옥), 테너 이준실, 그리고 여성듀엣 러브위스퍼의 공연이 있었다.

3부는 태평양 법률사무소 주성철 목사가 ‘동성혼 연방법 통과에 따른 교계 및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미주CGNTV 개국 10주년 축하음악회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미주 CGN TV 개국10주년 축하음악회

테너 박인수 교수와 그의 음악친구들 출연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축하음악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테

너 박인수 교수와 그의 음악친구들의 무대로 펼쳐졌다.

음악회는 박인수 교수, 테너 오위영 목사, 윤길용, 김성준, 소프라노 서정화, 송란, 피아니스트 이하늘이 출연해 성가곡과 한국곡, 민요, 그리고 아리아 등을 불렀다.

축하음악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으며, 김경진 목사가 ‘땅 끝까지 끝 날까지’(왕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CGNTV 대표이사인 유재건 장로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존스마이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조지아해병목사회 3차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힘차게 단결...조지아해병목사회

3차 모임, “미국을 향한 마지막 경고” 시청회도 가져

조지아해병목사회(GMCCA, 회장: 유지화 목사)가 지난 13일 안디옥 선교관(관장 어태용 목사)에서 제 3차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고영민 목사(새생명침례교회 협동)가 기타를 치며 뜨거운 찬양인도를 했으며 박관영 목사(서기) 인도로 드린 예배는 김민수 목사(부총무)가 기도하고 배창섭 목사(고문)가 설교했다.

배 목사는 “참 선지자 미가야와 같이 되자”(역대하18: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을 때 나라가 굳게 섰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과 아함의 딸이 혼혼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함의 뜻대로 전쟁에 함께 동참했다. 전쟁에 나가기 전 4백여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이

번 전쟁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달라 하자 선지자들 모두가 아함왕에게 길한 예언들을 하여 아함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참 선지자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전하므로 아함왕의 마음을

쌌으나 결과는 그의 예언대로 이뤄졌다”고 말하며 “우리 조지아해병목사회 회원 목사들도 선지자 미가야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 되자”고 설교했다.

홍문공 목사(사랑침례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류영호 목사(애틀랜타노인대학 학장)의 식기도 후에 회원들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온 풍성한 애찬으로 코이노니아의 사랑을 나눴다.

이날 회원들은 선교관측이 준비한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워싱턴-기도의 사람’ 연례행사에서 연설한 유대인 랍비 출신의 조나단 칸 목사의 연설 “미국을 향한 마지막 경고”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연설은 지난 번 미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전에 했던 것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어떠한 결정과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어떤 법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앞둔 박관영 목사(19일 아마존 선교지로 2개월간 선교여행을 떠나는 회장 유지화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회원주소록 발간 준비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다음 모임은 9월 20일(주) 오후 6시에 갖는다.

지난 5월 창립한 조지아해병목사회 가입 및 문의는 어태용 총무(404)547-4754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APU한인동문회 주최 에스겔서 특강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에스겔서 연구” 주제로 특강

APU한인동문회 주최, 강사 박준서 박사

아주사피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특강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본교 웨스트캠페에서 열렸다. 이번 특강은 본교에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박준서 박사(전 연세대학교 교학부 총장, 연세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에스겔서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서 박사는 에스겔서의 배경과 소명 에스겔의 신학적 구조 에스겔의 공헌에 대해 설명했다.

박 박사는 “에스겔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반면 예레미야서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한 예언자였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다. 에스겔은 솔로몬왕 이후 성전권을 장악한 사독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한 가문이다. 반면 예레미야는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은 아비달 가문 즉 솔로몬집권 후 축출된 제사장의 후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제사장이 되던 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포로였기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가 바벨론에서 풀려나던 시절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이스라엘은 50세가 되면 제사장직에서 은퇴해야 한다. 따라서 그가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는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새정전의 환상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서 박사는 “예루살렘의 신학의 위기는 첫째, 시온신학의 위기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택한 곳이기에 어떤 적에게도 함락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깨졌다. 둘째, 성전신학의 위기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법제가 있는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셋째, 다윗왕조 신학의 위기 즉 삼하7:16 ‘네 집(다윗왕조)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다윗왕조가 종말 될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 에스겔은 신학적 대답을 제시해줌으로 유다백성들은 극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박용만 기념재단 주최 대조선 국민군단 101주년 기념식이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대조선 국민군단 101주년 기념식

박용만기념재단 주최...박용만 장군 업적 추모

박용만 기념재단(회장 박상원 장로)가 주최한 대조선 국민군단 101

주년 기념식이 13일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우성 박용만 장군의 업적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상원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노인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분들은 각 가정의 이민선조들이다. 그들이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알려 대한민국의 얼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규 목사(방주교회 담임)는 “매달 둘째 목요일에 이곳에서 타운 내 어르신들에게 음식 나누는 일을 해왔다. 특별히 박용만 기념재단이 주최한 행사가 열려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과 애국가 부르고 조국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져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광복70주년 성명서 발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 이하 여목협)가 광복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미주 지역 단체 중 첫 성명서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광복절 70주년 성명서’라는 이름의 이 성명서에서 여목협은 “50만 디아스포라와 5천만 한국국민들과 함께 국권을 상실하고 억압받던 한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맛

보게 하신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밝히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응답에 감사하지만 70년을 돌아보며 자책과 회개의 심정도 밝혔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십자가 정진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

적으로 억압 받는 자들의 침묵의 소리들을 듣고 대변해 나가려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의 연합과 일치성을 이루어 가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 서 미완의 해방이 완성되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서남노회여성선교회가 본교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상명 총장, 전국여성교회 전 회장 정선희 권사, 서남노회여성교회 백소영 권사, 산타페인문대학교육원 디렉터 강우중 교수.

미주장신대에 총1만천불 후원금 전달

KPCA 전국여성교회 & 서남노회여성교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산하 전국여성교회(회장: 문명숙 권사)와 서남노회여성교회(회장: 백소영 권사)가 각각 1만 달러와 1천 달러의

후원금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에 기부했다. 서남노회여성선교회 회장 백소영 권사와 전국여성교회 전 회장 정선

《7면에서 계속》

4) 이 영화는 어떤 종류의 영화인가? 판타지, 전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혹은 코미디인가? 영화의 목적이나 장르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코미디에서 역사적 정확성을 찾으려 한다면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5) 이 영화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가 비기독교적인가? 비기독교적이거나 그 주요 주장은 상대주의적이거나 독단주의적이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비판적인가? 낙관적인가? 배우들의 연기는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인간의 선택만을 중요한 역할로 간주하는가?

6) 주요 줄거리는 무엇인가? 등장인물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가?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인류가 야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사실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가? 이 영화는 타락을 부인하는가? 긍정하는가? 7) 그 문제들은 해결 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만일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8) 이 영화에 있어서 가족, 성관계, 인간의 삶, 재물, 진리, 마음의 태도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만일 도덕적 기준이 있다면 그 원천은 무엇인가? 정의가 잘 지켜지는가?

9) 코미디 영화에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농담의 대상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나 전통적 가치, 악인, 의인, 하나님, 사단인가? 농담은 무질서한가? 합리성이 일그러져 나타나는가? 농담은 격렬한가, 아니면 적당인가? 누구를 풍자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인가?

10) 영화 제작자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문학 작품, 다른 영화, 유명한 사람, 성경 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성경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는가? 영화에서 어떤 성경적인 암

의 권사는 8월 13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해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다.

F-1 비자 거부와 미주 지역 한인 사회와 교회의 재정 악화로 인해 신학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입생 유치에 호조를 띄고 있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여선교회의 후원은 다세대신학교(multi-generational seminary) 실현에 귀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다세대신학교는 2018년까지 1.5세와 2세 사역자를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주장신의 새 프로젝트다.

KPCA 여선교회는 볼리비아, 미얀마,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우 선교, 노인 선교, 마약 선드 선교, 의료 선교, 학원 선교를 담당하면서 장학금 수여와 같은 다양한 선교 및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1) 이 영화의 주요 이미지는 무엇인가? 카메라의 앵글, 조명, 음향, 특정 주제를 암시하는 타이밍에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는가? 어떤 중요한 상징들이 등장하는가?

12) 이 영화에는 어떤 명시적인 종교적 주제가 담겨 있는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그 기독교 성직자, 교회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드러내는가? 그 영화는 기독교를 왜곡하거나 최악의 모습으로 그리는가? 그 영화는 어떤 통찰이나 연민을 나타내는가? 그 영화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요소를 인정하는가? 사탄이나 악령,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 영화는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계단 인정하는가? 마귀를 진지하게 취급하는가? 그 마귀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메일: yoonsuklee@hot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21기 뉴욕 실버미션스쿨 개강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덕 목사)가 운영하는 21기 뉴욕 실버미션스쿨 가을학기가 8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식사 7시)부터 열린다. 장소는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이며 등록비는 일인당 1백 달러. 강의가 끝난 후 옵션으로 11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멕시코 오하카 단기선교가 예정 돼 있다.

▲문의: (718)279-2758, (646)642-155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임직식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8월 23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동 교회는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20명의 안수집사 임직과 1명의 안수집사 취임 임직식을 갖게 된다.

▲문의: (718)229-0858

부모회복학교(HMMS) 개강

부모회복학교(HMMS)가 뉴욕(3기), 뉴저지(7기)에서 각각 개강해 각각 7주만에 걸쳐 진행된다. 일정은 뉴저지: 9월 12일(토)부터 저녁 7시 한빛교회(343 Kinderkamack Rd, Oradell) 뉴욕: 9월 17일(목)부터 저녁 8시, 함께하는교회(147-15 46Ave, Flushing). 참가대상은 N세대 부흥을 꿈꾸는 부모와 자녀, 청년 그리고 모든 이들이다.

▲문의: (646)300-4790뉴저지, (917)992-5200뉴욕

2015 청년연합 찬양집회

2015 청년연합 찬양집회 "Blessing New York"가 나무교회(40-15 149St Flushing)에서 열린다. 일시는 △10월 2일(금) 오후 8시 후라산제일교회 찬양팀 △3일(토)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찬양팀 △4일(주) 오후 6시 백투위십. 사흘간 설교는 김동현 목사(우리감리교회 담임)가 맡는다.

▲문의: (646)942-2078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오재환 목사)가 주최하는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가 10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교회돌봄연구소 교회부흥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이 컨퍼런스 강사는 강유형 목사(성수감리교회 담임), "One Pass 전도와 새가족 정착 방안", 박기준 목사(대구목자교회 담임), "전도에서 새가족 정착까지의 전략", 이혜란 사모(대구목자교회), "시스템과 양육을 통한 새가족 정착", 김중석 목사(교회돌봄연구소 대표소장) 등이다. 등록비 50달러(9월 25일까지 이후는 70달러).

▲문의: (646)354-8989

농협과 이노비, 은혜가든서 광복70주년기념 이벤트

지난 14일 뉴저지 노우드의 은혜가든 양묘원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을 기념해 봉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열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지점장 엄음용)과 이노비(대표 강태욱), 그리고 은혜가든이 공동주최했다.

이벤트 음악회에는 뉴욕 일원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음악인들이 참여해 축제분위기의 가곡과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은혜가든은 세계 2차 대전과 일제강점기, 광복을 겪은 한인인과 타민족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설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젊은 세대가 그들의 용기와 희생, 봉사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마련됐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가 개최한 박용순 목사 초청 회복성회에서 이만호 담임목사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광복 70주년 기념 시국강연 및 이승만 생애 영문판 출판기념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기념

시국강연 및 이승만 생애 영문판 출판기념회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맞아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남수 목사)와 신뢰회복국민연합 미주본부(회장 김영길)가 공동주최하는 미주신포럼 시국강연 및 출판기념회가 8월 15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김영길 회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 공화정을 성립시킨 건국지도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대한민국의 안보체제 기틀을 구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망함으로써 국내외 동포들의 시국인식을 새롭게 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연과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 생애" 영문판 출판 기념회가 열려 김남수 목사(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가 발간사를 했으며, 저자 안병환 대표(통일과 나눔 이사장)가 인사를 했다. 김남수 박사는 "한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미주와 해외 동포들도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하지만 조국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사상과 이념을 배우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상과 시장경제 원리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후세에 알려야 한다. 이 대통령의 생애를 영문판으로 출간한 것도 그 맥락에 있으며, 전 세계 지도자와 각국의 도서관에 이 책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만호(이승만 포럼 회장)가 "한미동맹과 이승만", 류근일(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한민국 이념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건국 리더십" 강연을 했다.

마지막에는 김명신 장로(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자문위원)와 임형민 한미총회 회장의 인도로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이승만의 생애" 영문판 구입 문의는 (718)539-5700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영권 인권 물권 회복성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박용순 목사 초청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8월 14일부터 3일간 박용순 목사(인천주안중앙교회 담임)를 강사로 '영권 인권 물권 회복성회'를 열었다.

박용순 박사는 첫날 저녁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출14:13-14), 둘째 날 새벽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받는 축복"(시73:17-18), 저녁 "성령충만 받는 비결"(행1:12-14), 주일 낮 "하나님과의 영

적인 씨름을 시작하라"(창32:21-32), 주일 오후 "변화산의 역사를 일조하라"(눅9:28-36)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강사 박용순 박사는 한국 기독교 성령 일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공동회장, 한국기독교복음선교회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으로 활발하게 성령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한국과 미국, 이슬람 확산 막아야"

대한민국 건국67주년 광복70주년 통일기도회

'대한민국 건국 67주년 기념과 광복 70주년 및 통일기도회'가 한국 국가기독교운동 뉴욕지부(지부장 윤오성 목사) 주최로 16일 오후 6시 라마나웃기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세계 국가기독교운동의 영향을 받아 조갑진 서울신대 교수가 시작한 한국 국가기독교운동본부와 협력해 개최된 것으로, 세계 각 도시의 한인들이 광복절을 맞아 국가에 필요한 기도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다.

뉴욕지부장 윤오성 박사는 "회개할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개인이 살아났다. 이 기도운동은 미국과 한국과 교회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기도회가 250만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와 나아가 800만 해외 동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미국은 종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자"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한국 내 이슬람 확산 및 할랄 식품 허용 △미국 공공기관 내 심계명 철거 및 동성결혼 허용 △IS확산 방지와 이슬람의 한국과 미국을 향한 전략적 포교 대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

이밖에도 △한국과 미국의 죄 회개와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과 성직자,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도록 △다원주의와 WCC 반대를 위해 등을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

첫날 예배 설교를 맡은 이만호 목사(뉴욕목사회장은)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시118:5-7)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어 우리 사역을 펼쳐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편들어주시는 사람은 첫째, 감사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둘째, 고통 중에도 강력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국가 문제를 위해 성도들과 성직자들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대한민국 건국67주년 광복70주년 통일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제

뉴욕늘기쁜교회, 최낙중 목사 초청 부흥성회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8월 14일부터 사흘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담임)를 강사로 부흥성회를 열었다.

최낙중 박사는 첫날 저녁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마15:21-28),

둘째 날 저녁 "복 받는 교회생활"(엡1:22-23), 주일 1부 "성령의 매인 사람"(행20:22-24), 2부 "잔치집 같은 교회"(요2:1-11)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집회는 김홍석 목사 사회로 첫날 기도 찬송회 목사, 축도 황영진 목사, 둘째날 기도 이종명 목사, 축도 허길 목사 등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강사 최낙중 박사는 예정배석 총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한기총 공동회장,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시대표회장 등 다양한 교계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뉴욕교협 신년하례 설교자로 초청된바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강연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강연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은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gtochur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3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은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hdcchurch.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은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sd.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대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강연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화-토)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http://emcnyc.us/	예사당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은혜)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은혜)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강연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은혜)예배: 저녁 9:00 주일강연예배: 아침 7:40 주,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1, 2, 3, 부스대니쉬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광복 70주년 교계 메시지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교회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단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과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교계는 일제의 통렬한 사죄와 함께 한국교회의 자성과 연합·일치, 평화통일을 향한 기도·지원 활동 등을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한 사죄하며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제사회의 일일로서 올바르게 보편타당한 역사관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는 소모적인 논쟁과 비판을 지양하고 회개·기도·성령 운동을 통한 영적 대각성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의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원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분열과 교만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며 “독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밀알과 마중물이 되자”고 제안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 보수와 진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는 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선배들의 땀과 눈물,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운동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 각계에서 한 알의 밀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자”고 말했다.

주요 교단들은 교단 산하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피로 얼룩지고 진영논리에 갇힌 아픔 속에 놓인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며 “우리는 먼저 연합하고 화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감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일으킨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남과 북이 연합하기 이전에 남한에서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고 덧붙였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은 “불과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제 다음세대에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인 평화통일을 위해 뜻을 모아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예장백석은 “우리 안의 분열과 다툼을 회개하고 하나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서 “연합한 교회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통일 국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담화, 일제 침략 사죄 포함해야”

종교정치·여성학계 등 각계 인사 33인 시국선언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종교·정치·여성·학계 등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 33명은 12일 일본 정부에 과거 사죄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해방 70주년 광복절 국회 기념식 및 각계 인사 33인 시국

선언’에서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하는 ‘아베 담화’는 역대 내각의 담화 내용을 계승해야 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진정한 사죄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출범 후 무라야마 선언의 백지화 시도, 고노 담화 재검증, 일제 치하 강제 징집된 한국인 수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부정하는 행보를 가속화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전된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장법안’ 강행, 처리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3인에는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황용대 한국기독교

나라 서로 화해하고 감싸 안는 통일을 달라고 간구하자”고 권면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용재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돌아보아야 한다”며 “우리는 먼저 연합하고 화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감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일으킨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남과 북이 연합하기 이전에 남한에서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고 덧붙였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은 “불과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제 다음세대에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인 평화통일을 위해 뜻을 모아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예장백석은 “우리 안의 분열과 다툼을 회개하고 하나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서 “연합한 교회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통일 국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단 70년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도하자. 울며 애통하며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한 기도의 씨를 한반도에 뿌리자”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라고 약속하셨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신은하씨는 강증에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다”며 “행사에 참여해 큰 은혜를 받았다. 통일한국을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통곡기도대회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북한동포 구원과 통일한국을 염원하며 통곡하는 취지의 행사다. 2004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예

교회협의회장,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고건 장상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했다.

김영진 상임대표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쓴 시 ‘탄세함성’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마친 W-KICA 관계자들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시국선언문을 전달했다.

어포트 힐튼호텔에서 한인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그해 미국 상원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교연은 앞으로 탈북난민 북송 중단 운동과 도시별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20개 시·군·구 조직을 정비해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에도 나선다. 청년과 대학생, 여성, 교수 등 분야·계층별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인터넷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난민촌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북교연에는 현재 에스더기도운동, 북한교회세우기연합, 탈북민기독교총연합회, 민족사랑나눔 등 10여 단체가 가입돼 있다.

예장고신-고려, 9월 총회서 하나 된다

‘성도간 사회법정 소송 불가’ 합의 토대 통합결의 방침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과 고려(총회장 천환 목사)가 오는 9월 총회에서 통합될 전망이다. 양 교단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통합 합의문 작성을 완료하고 9월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체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순교로 대처했다”며 역사적으로 같은 신앙 정신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1976년 제26회 총회에서 ‘성도 간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교단이 분열됐고, ‘성도 간의 사회법정 소송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합의를 토대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9월 제35회 총회에서 통합이 결의되면 69년 만에 분열된 역사를 봉합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김철봉 예장고신 총회장과 천환 예장고려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각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양 교단 통합추진위는 교단의 역사와 노회 편성, 교역자 신분 보장, 신학교 운영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 교단은 통합 시 총회 회기와 교회역사, 신학교 졸업기수 등 총회의 모든 역사를 병합하게 된다. 노회 편성에 있어서는 고려총회의 노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총회의 행정개편과 함께 지

역노회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총회소속 목사와 선교사, 교역자 신분을 헌법대로 보장하며, 항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양 교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에 대해서도 병합이 이뤄진다. 예장고려 측이 운영하고 있는 고려신학교신학원을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고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키로 했다.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 사항은 양 교단의 통합추진위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 교단은 오는 9월 15일 고려신학대학원(예장고신)과 수원과학대학교(예장고려)에서 동시에 총회를 개최한다. 첫날 교단 통합 안건이 위법하게 결의되면 둘째 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통합 선언식을 치른 뒤 나머지 일정을 통합 총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4년 총회에서 보고된 양 교단의 교세 현황은 고신총회가 국내 노회 36개, 해외노회 13개(재미총회(8개), 대양주총회(3개), 유럽총회(2개)), 국내 교회 수 1852개, 목사 3308명, 선교사 414명, 전체 교인 수는 47만2717명이다. 고려총회는 국내노회 6개, 해외노회 2개(미주·유럽노회), 국내 교회 수 171개, 목사 222명, 선교사 16명, 전체 교인 수는 2만296명이다.

한교연 “북한 지뢰도발 규탄” 성명

“도발 중단하고 대화 옹하라…군은 경계태세 재점검 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12일 ‘북한의 지뢰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도발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교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이때에 북한의 도발행위는 7500만 민족 모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만일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위협과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평화를 지키기는 어렵고 깨지기는 쉽다. 따라서 우리

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는 도발 행위까지 묵인한다면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돌변하고 만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교연은 군에 대북 경계태세 재점검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도 번번이 당하는 것은 군의 경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더 큰 도발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전력을 배치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선교 컨트롤 타워 필요”

광복 70주년...북한선교 위한 컨퍼런스 개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미래목회포럼 등은 14일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통일의 문, 북한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 사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북한선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탈북민사역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회장 오성훈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북한선교의 일부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오 목사는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여성 탈북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조선족 사역자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등 자격 미달 사역자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 중 하

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선교를 총괄하는 조직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오 목사는 “통일선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인권문제와 대북지원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마요한 목사는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탈북민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목사는 “이 땅에 먼저 온 3만명의 탈북민을 한국교회에 온전히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에 그 곳에 있는 2500만 동포를 복음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재 미래목회포럼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국민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이 뜻을 함께 하여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젠 광복의 완성, 통일 위해 합심”

한기총, 해방 70년·광복절 67주년 감사예배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아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어린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주관으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해방 70년·광복절 67주년 감사예배’는 성도 1만여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르는 ‘광복절 노래’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해방과 건국,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민족화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최성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67년 전 오늘 건국된 대한민국은

우심니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위해 아버지 야곱이 통곡했듯 잃어버린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계실 것”이라며 “빠듯한 하나님의 권리, 즉 신권 회복을 위해 저희들이 통곡하겠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호소했다.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목사는 “분단 7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선포했다. 최성규 목사는 “분

도의 종, 사랑과 진리의 종이 될 때 나와 이 민족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평화통일기도회준비위 대표대회장 김삼환(명성교회)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순교하며 피 흘린 것을 보시고 세계를 움직이셔서 광복을 허락하셨다”며 “이제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0년은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역사였다”며 “앞으로 화해와 포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그 힘으로 남북을 통일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기총 공동회장단의

빛고을에 울려 퍼진 통일과 화합의 노래

극동방송 주최, 광주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이 주최한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2015’가 14일 광주시 서구 상무리리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축제는 광주 기독교인과 시민 등 5500여명이 참석했다.

육군 31사단 군악대의 군가 연주로 시작된 축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6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됐다. 이를

다운 강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과 식민통치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삶을 그렸다. 전쟁의 비극에서 부흥과 성장을 이룩한 것을 표현했고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의 모습이 합창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마무리는 통일 염원이었다. 행사

장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합창으로 시작된 통일의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확장되며 관객들도 동참했다.

한기총 극동방송 사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나라사랑 축제가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모으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2016’은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내년 6월 24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미 감리교선교사 헬버트 박사 서거66주기 추모식

극동방송 주최, 광주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던 호머 헬버트(1863~1949·사진) 박사의 서거 66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12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백주년선교기념관에서 열렸다. (새)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교계와 정·관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헬버트 박사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분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헬버트 박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건국공로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모두 받은 유일한 인물인데도 많은 국민이 헬버트 박사의 업적을 알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을사늑약 110년이 되는 해”라며

“을사늑약을 막아보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헬버트 박사의 피 맺힌 눈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63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태어난 헬버트 박사는 23세이던 1886년 내한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에 힘썼다. 일제 만행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다. 헬버트 박사는 1949년 7월 29일 다시 돌아와 며칠 뒤인 8월 5일 별세했으며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원에 따라 양화진에 묻혔다.

선교의 창 (37)

로잔언약에 나타난 선교사상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교회의 선교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간 진보적 계열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 등 인간적이고 획적인 관심에 집착하며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적 계열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을 해야 된다는 종말론적 시각이 강했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이 약화된 반면 사회운동에 힘을 쏟았다. 후자는 영혼구원과 목양 쪽에 집중하다보니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등한시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영역 흐름 속에서 교회는 선교적 헌신이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음주의 계통의 세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로잔(Lausanne)대회였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율타리를 헐고 비 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에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복음화 함과 동시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성경 번역, 신학 교육, 방송매체, 기독교 문서 사역, 전도, 선교, 교회 갱신, 기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울러 이런 단체들도 교회 선교의 한 사역자로서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을 위해, 서로서로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자원과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 지역적이며 기능적인 협력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로잔선언은 주제에서 보듯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신학의 토대 위에서 시작하여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을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비추며 이끌어야 한다.

World Evangelization)는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다. 당시 의장은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였으며 150여 개 국가에서 3,7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주제는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Let the earth hear His voice)였다. 본 대회의 최대 성과물은 존 스톱트(John Stott) 목사가 기초한 로잔언약을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다. 당시 세계의 각 언론들은 '20 세기에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천선언 가운데 하나'라고 칭송했다.

이 언약은 총 15개항이며 '하나님의 목적(The purpose of God)'에 관한 교리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The return of God)'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학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정신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1989년 마닐라 선교대회와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로 이어졌다. 문제는 효용성이다. 아직도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아예 모르거나 관심 없으니 어찌 사역 현장에 원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머리를 싸매고 만든 결의(Covenant)를 한자 역사적 문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교적 시각에서 본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한다. 교회가 만일 복음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진심한 사랑이 없거나, 사업 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라고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체제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해외선교사와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자원을 내보내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더 자유롭게 6대주 전역에 걸쳐 교류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

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

하고 있다. 그 영역은 진보적 주장이나 보수적 사고에 갇히지 않았다. 시대 조류나 요구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면서도 건강한 선언문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선교란 꼭 종말론적인 구령사역에만 국한하지는 않았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을 부인하고 사명에 실패한 것이 된다. 교회는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지상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일원으로서 로잔언약을 소화하고 사역 현장에 실현함이 복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아의 견고한 진과 교회의 담을 과감히 헐어야 한다. 담이 높고 견고할수록 복음은 갇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쿠란이 이교도 성폭행 허용” IS, 성노예 만행 정당화

뉴욕타임스(NYT)는 18일 IS 조직원들이 어떻게 성폭행과 성노예를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라크의 한 난민촌에서 만난 야지디족 소녀들의 끔찍한 얘기들을 보도했다.

이 소녀는 IS 조직원이 자신을 성폭행하면서 “쿠란에 따르면 이교도에 대한 성폭행이 허용된다. 나를 성폭행함으로써 자신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두 손을 묶고 재갈을 물린 다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뒤 성폭행했고 끝나고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이 소녀는 덧붙였다.

쿠란이 이교도인 자신을 성폭행할 권리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납하고 장려한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20대의 IS 조직원에 팔린 15세의 F라는 소녀도 “그가 나를 성폭행할 때마다 예배를 올렸다”면서 “그는 나를 성폭행하는 것이 신에 대한 기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 난민촌에서 만난 21명의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의 증언들을 IS가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이를 따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IS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슬람 법정에서 승인된 노예계약서를 포함해 성노예 관리를 위한 정교한 체계와 지침들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쿠란과 다른 종교의 교리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신앙에 좋은 일, 심지어 고결한 행동으로까지 찬양하고 있다.

신문은 IS가 지난 8월 초 야지디족의 주거지인 이라크 북부 신아르 산을 침입한 직후 체계적인 성노예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처음엔 IS의 이 지역 점령이 단순한 점령지 확대로 여겨졌지만 진짜 목적이 야지디족을 성노예로 삼으려 했던 게 곧 드러났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IS는 침입한지 몇 시간 만에 남자와 여자들을 나눈 뒤 남자들은 마을 근처로 끌고 가 총살하고 여자들과 소녀들, 아이들만 트럭에 실어 끌고 갔다.

시카고대학의 야지디족 전문가 매튜 바버는 “IS의 야지디족 주거지 공격은 점령지 확대만큼이나 성 정복에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야지디족 5천270명이 납치돼 이중 적어도 3천144명이 아직도 붙잡혀 있다고 야지디족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다.

IS, 리비아 시르테서 공개참수·시신방치 등 만행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리비아 중북부 항구 도시 시르테에서 주민 참수와 시신 훼손, 총성 강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8일 보도했다.

시르테 주민과 목격자에 따르면 IS 대원들이 최근 시르테에서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무장한 주민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진압하고 있다. IS 대원은 저항하는 시르테 주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적으로 간주한 이들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IS는 최소 12명을 참수하고 나서 이들의 시신을 십자가에 못박는가 하면 다리 위에 민병대원 4명의 시신을 묶어 놓고 고의적으로 방치했다. 동시에 IS는 시르테의 주요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설치된 확성기로 지역 주민에게 총성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시르테의 한 소식통은 “최근 닷새 동안 IS가 무장한 주민들과 충돌하고 나서 시르테를 장악했다”며 “IS는 중화기를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IS는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전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한 정국 혼란의 틈을 타 리비아 동부에서 세력을 키워 왔다. 올해 초에는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 지역으로 진격을 시도했다.

현재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리비아에서는 각 지역 민병대의 권력 다툼에 IS의 세력 확장 탓에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영사 라후체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사 라후체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www.laguesthouse.com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캠프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침실 가꾸기(3)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는 침실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우리의 침실을 더럽혔을 때는 그동안 쌓아온 행복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목회자부부의 침실이 어떤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사모들은 대부분의 경우 절제와 금기를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침실에서 하는 부부의 성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관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주님으로 상징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교회로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론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침실에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성생활자체를 성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정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더럽고 추한 것

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섬김의 도의 기본이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고상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영어로 service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부끼리 침실에서의 봉사는 단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부생활을 다룰 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인 사랑을 내려 보내주시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부부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은혜입니다. 이것이 침실에서 되어질 때 이들의 부부는 더욱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성욕을 채우는 성행위가 어떻게 거룩의 계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부의 성행위를 통해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 모두는 거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남편에 부당하게 하는 것은 부부들 주변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특히 목회하는데 방해요소들이 제법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가장 관련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의 경우 남편이 주로 밤에 요구했을 때 아내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빨리 자고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남편의 요구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매우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들은 한번 거절감을 당하면 자존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내 또한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아무 감동도 없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

행복한 목회는 침실 잘 가꾸는 것... 작은 여우새끼로 순식간에 무너져 부부성생활은 예배와 연관... 바른 성지식 갖고 문제점 개선 위해 기도

육신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성행위 자체를 마치고 나면 기도가 안된다고 호소해오는 사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한번 기억된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감정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성관계가 건전하지 못할 경우 성공행을 당한 상처, 혹은 부부사이라 해도 충분한 사랑의 언어 없이 일방적으로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당한 경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 성지식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순결을 잃은 이후 결혼한 남편과의 성생활에서 감정을 충분히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부부의 침실을 성스럽게 하지 못하며 따라서 행복하고 즐거운 침실을 더럽히고 맙니다.

부부의 성이 성스럽게 위해서는 부부끼리 서로 감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직 남아있는 부부는 충분한 성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의 침실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고백과 함께 서로 용서가 사랑의 고백으로 흘러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침실에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나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 되는 순간이 침실에서의 예배 시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와 감사로 서로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됨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침실의 자리입니다.

부부의 생활은 의무감에서 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고전 7:4).

이것이 부부성생활의 규칙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자기의 몸을 맘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거리가 너무 먼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욕구만 충족

시키고 맙니다. 여기에 무슨 봉사를 말하고 거룩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지겨운 밤이 오는 것이 싫고 두렵기만 합니다"라고 하는 사모들의 고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부부들에게는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라는 이론은 책상에서만 외쳐지는 이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 지친 사모들의 성은 우리의 생활에서 제일 뒷자리로 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난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 어느덧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은퇴목사 사모가 되어 버립니다. 자녀들은 이미 품안을 다 떠나고 홀로 남는 빈 둥우리 시대가 되고 나면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던 사모의 추억은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사모 세미나를 가보아도 성문제만큼은 해결되지 못한 채 가슴 속앓이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해하기에는 몹시도 어려운데 하지만 바울은 부부생활을 다룰 때마다 기도와 연관시켰습니다.

고전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까운 청춘을 그냥 썩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값진 선물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헌신짝처럼 취급한다면 만들어주신 주인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숙을 위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각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외로 성에 대한 문제는 기도의 제목에서 제외됩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한 기도생활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침실을 위해 반드시 기도제목은 세워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나 혹은 행복한 성행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새끼들을 내어 쫓아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성생활은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를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의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삼상12:10-15)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한번 번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지금도 마른하늘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사적인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임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깨닫고 눈물 흘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깨닫고 그 고백과 함께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화 이 큰 일을 보라(삼상12:16-18)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설교 후에 기도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형통함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

운 축복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밀 베는 때가 아니냐?"는 말씀을 주목해봅시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밀을 베는 4월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수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삼상12:20-22)

하나님께서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두 다 용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인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뻐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단련도 시키시지만 결코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걸고 이루신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시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좇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시127:1-2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이 허사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목 헛된 것을 좇지 말라(삼상12:21-22)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설교로 부탁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한데 따른 두 가지의 실패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없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며, "구원"이라는 말은 정치적, 영적, 군사적으로 환난에서의 구출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을 왜 따

라가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좇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시127:1-2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이 허사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삼상12:23-25)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던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께 전제 기도하고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

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24시간 느껴지는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24시간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지는 분이입니다. 부부가 기도해주는 것을 아는 자녀는 반드시 행복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삼상13:1-8)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한 기한대로 7일간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으로 불안해진 백성들이 흩어지자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 직접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왔고 사울을 꾸짖으며 여호와와 명령을 어겨 왕의 나라가 길

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대단한 잘못 같지 않은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데까지 가게 됐을까요? 사울왕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신앙이 속 깊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www.dendunhanchurch.org Tel: (031)877-3339, Fax: (031)877-8382 (주)110-831-1111 (주)110-831-1111 (주)110-831-111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동 1330-20</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1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7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1712 291(삼일빌딩)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37-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동 294-1(104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3)



엄예선 박사
(플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IV. 신학적 성숙성

목회자가 신학적 성숙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수도 없고, 확고한 소명의식도 갖기 어렵고, 양들에게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이며 양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고,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리더가 될 수도 없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신학적 성숙성을 쌓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목회자가 신학적 성숙성이 결여될 때 설교나 성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는 값싼 구원론, 그러한 구원파적 사고가 낳는 윤리의 부재, 부와 건강의 복음,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함,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이해함, 여성차별적인 가르침,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배격하고 선교를 구령사업으로만 이해함, 천국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화의 삶을 추구함, 무속적, 상업적 성령운동, 이단 사실들에 쉽게 휩쓸림, 반 지식주의, 빈곤한 설교, 구약적 사고방식, 소로 변질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2)목회의 목표(사명감/비전)와 자세(신실성과 헌신)와 행동(삶)을 늘 점검해야 한다.



즉 자신의 목회 목표(사명, 비전)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위하여 방법을 타협하지 않는 신실성과 목표에 대한 헌신된 자세가 있는가? 자신의 현재의 행동과 삶이 자신의 목회 목표와 올바른 삶의 자세를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3)민주적 절차와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목회자는 소속 교단의 교단법을 포함한 자신의 교회가 지켜야 할 모든 교회운영 규칙들을 담은 매뉴얼을 교회 대표들과 함께 만들어서 전체 교우들과 공유하고,

도 있다(Lee & Fredrickson, 2012).

6)목회자는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교회공동체나 사회내의 불의와 악을 목과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와 사회내의 악과 불의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가지고 문제들을 직시해야 하며, 나아가서 자신에게 고통과 손해가 와도 용기 있게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리더로서 앞장서야 한다. 목회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교회문화나 사회문화를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7)목회자는 성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주는 empowering ministry를 해야 한다. 즉 사람들에게 남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스스로 물고기를 잡게 하듯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 스스로 영적으로 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목회자 자신이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단순히 helping ministry를 하는 목회자이다. 이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지 못하고 자신도 탈진된다. empowering ministry를 하는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신학적 성숙을 하도록 배움의 기회를 장려해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사역을 맡긴다.

8)조직에 관한 이해를 갖추고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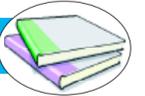
9)자신의 혹은 자신 편에서 서는 사람들의 유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 즉 때로는 나와 내 편이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이 상반될 때가 있는데 참 리더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목회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이 꽤 있다.

10)공적 영성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교계 전체의 유익, 나아가서 기독교계의 전체 유익과 사회전체와 국가와 인류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를 계도화 시키지 말고, 교회가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메일: yeasunkim@gmail.com (계속)

책 소개



"21세기에 다시 읽는 요한복음"

제 1권 '내가 그로라', 제 2권 '내가 믿느냐', 제 3권 '다 이루었다'



저자 강영석 목사

강영석목사(성화장로교회 담임)가 '21세기에 다시 읽는 요한복음'이란 서브타이틀 갖고 요한복음설교집 제 1권 '내가 그로라', 제 2권 '내가 믿느냐', 제 3권 '다 이루었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신학과 신앙과 윤리는 한 맥을 이루어야 하기에 오늘 날 복음의 일꾼들은 사도요한의 신학과 신앙과 사상을 따르고 항상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에서 지나쳤던 것들을 수집하고 그들이 빠뜨린 것을 수록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히 풍성한 생애를 표현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성한 일들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1권 '내가 그로라'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62편의 강해설교로 풀어 첫 장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하며 말씀의 선재성(先在性), 말씀의 장소성(場所性), 말씀의 신성(神性)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 2권 '내가 믿느냐'에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으로 62편의 강해설교를 수록했다. 제 2권 첫 장에는 요한복

"신학과 신앙과 윤리는 한 맥"...사도 요한의 가르침 따라야

음 7장 1절-9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때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시간밖에 존재하고 모든 시간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장악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때를 주님을 위해 선행해야 합니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제 3권 '다 이루었다' 역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총 67편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런 죽음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주신 진리의 성경말씀이라고 마지막을 장식했다.

본서에는 장차남 목사, 박종구 목사, 김영욱 박사의 추천사가 각각 수록됐다.

장차남 목사(은천제일교회 원로, 예정중경총회장)는 "이 시대에 이 강해 설교집은 귀하고 값지다 그 이유는 질그릇 속에 보배처럼 모양도 풍채도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이 순수한 복음이며 성경본문에 충실한 설교"라고 치하했다.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는 "이 설교집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는 바른 텍스트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큰 기대를 표했으며 김영욱 박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는 제 3권 '다 이루었다' 추천사를 통해 "본서에는 기독교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기독교 구원은 역사적 사건,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동인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설교 집을 통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을 발견하고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는 텍스트가 되기 바란다"고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 책 구입 문의: 미주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신학적 성숙성 결여된 목회현장은 교인에게 독 먹이는 것과 같아 목회자는 영적 도덕적 권위 갖고 목회목표, 자세, 행동 늘 점검

경공부를 통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오도하고 심지어 영적인 독소를 먹이까지 하며 교회의 영성과 사역을 병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는 신학은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목회현장에 가면 신학을 버려야 한다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신학이 없는 목회의 폐해는 엄청나다.

한국의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성경공부와 사경회와 설교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부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실현함에 실패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신학적 빈곤에 있다. 신학적 성숙이 부족하여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왜곡하며 성경을 문자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면 도리어 교회에 폐해만 더 커지게 된다(김세운, 2013). 육한흠 목사도(김상철, 2014) 한인교회는 목사가 가르치기를 좋아하여 성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었으므로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회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학적 빈곤의 문제는 한인교회에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했다.

된 예배, 메가처치 현상, 교회세습(강영안 외 20인, 2013) 등이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성숙할 때 자연히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을 섬기기 위한 공적 영성도 강조하게 된다. 공적이란 "한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의미한다(이학준, 2011: 62). 공적 영성이란 기독교적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사회 문제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며, 나아가서 온 인류의 복지와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V. 리더십: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와 역할

1)리더로서의 목회자는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영적 도덕적 권위는 위에서 열거한 제자로서의 삶, 소명의식, 양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 신학적 성숙성이 목회자에게 갖추어졌을 때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것은 목회자의 삶과 설교와 목회방법에서 나타난다.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갖추지 못한 목회자는 목사직에 대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매뉴얼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의 비전들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해가는 사역 방법들을 결정할 때 충분한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교회를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목회비전과 사역 방법을 무조건 따라 달라고 주장함은 옳지 않다. 목회자는 또한 교인들에게 교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 특히 재정 관련 서류들을 공개하여 늘 교회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4)팀 목회를 하고 사역을 분담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우되 그들에게 과도한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면 안된다.

5)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관을 정립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인들과 나누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다. 교인숫자가 자라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때로는 숫자가 줄어들 때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년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키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